

## 같이 걷다보면 어느새 도착합니다



소현민

- 서울 삼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유서 깊은 『考試界』에 합격수기를 투고할 것을 지인을 통해 제안 받았을 때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모범적으로 변호사시험 수험생활을 보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객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였던 수험생활이더라도 다른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면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어렵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학부시절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학기에 걸쳐 학생회장을 맡았고, 매 방학마다 국가기관, 법무법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실무수습을 다녀왔습니다. 학업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스터디와 자습을 위주로 공부하여 변호사시험에도 바로 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보면 저의 사례가 지금까지의 사례들과는 조금은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II. 시행착오를 통한 공부방법 개선

법학 공부를 시작할 당시, 저는 저에게 저도 모르던 천부적인 법학 재능이 있지는 않을까 잠시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대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날에 해소되었습니다. 생소했던 법학 공부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민법 교과서를 줄줄 읽어보기도 하였고 학원 강사의 긴 강의를 들으며 수험서를 파고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에는 분명히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정작 시험 문제 앞에서는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창의성이 너무 뛰어났던 나머지 어떤 교수님께서서는 두 학기 동안 저의 시험 답안지를 침삭하실 때마다 “이게 네 답안지였니?”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저의 문제는 법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기술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숙지하고 이를 주어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여야 했는데, 기본 개념을 충분히 소화하기보다는 이해의 정도가 설익은 채로 이를 평가, 비판,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현학적으로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습의 방향과 초점을 문제해결에 두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훨씬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곧바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이를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비로소 학업에 대한 감을 익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 III. 구체적인 변호사시험 수험 준비

### 1. 공부 방법

#### (1) 스터디

스터디는 저의 수험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 방법을 교정하고 수험 감각을 길러갔습니다.

저와 함께하였던 스터디의 인적 구성은 학부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적절히 섞여있었습니다. 기존에 법학을 전공하였던 동기들이 주도하며 학업의 균형을 잡아주었고 비전공자들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주로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선정한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풀어본 후 서로 답안을 돌려보며 침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답안 스타일을 교정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인지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익숙해져갔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로 학교 강의 진도에 맞춰 그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였고, 과목별로 주 1회씩 진행하여 평균적으로 주 2-3회 정도 모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공부하며 진도를 맞춰갔고, 3학년이 된 후에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 (2) 자습

학원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저는 스터디 외에는 대부분 스스로 기본서를 정리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것 보다는 스스로 읽고 이해하여야 기억에 많이 남는 스타일이어서, 방학 때 가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던

것 외에는 최대한 자습시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례형 스터디가 있는 날에는 그날 풀 문제의 쟁점을 미리 확인하여 수험서를 보며 정리하였고, 선택형 스터디가 있는 날에는 복습하며 그 내용을 수험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서 강독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매일 주제를 정해놓고 그 부분을 읽으며 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후에는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을 모아서 읽으며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단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계속 반복하여 회독수를 늘려갔고, 시간관계상 다른 과목들은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공부하였습니다.

## 2. 교재 선택

### (1) 수험서를 중심으로 한 교재 단권화

저는 수험서를 기본서로 삼아 단권화하여 공부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교수저를 읽으며 보충하였습니다. 핸드북은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서 서술할 내용들을 빠르게 암기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단권화 할 수험서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 눈에 잘 들어오는지, 양이 너무 적어서 부실하거나 너무 많아서 회독을 늘려가기에 버겁지 않은지를 위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핸드북과 연결된 것을 선호하였는데, 그동안 눈에 익었던 수험서를 바탕으로 시험 전날에 빠르게 보면서 암기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3학년이 되기 전에 단권화를 끝내놓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물론 일찌감치 단권화를 끝내놓았다면 부담이 덜하고 좋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느 교재가 저에게 잘 맞는 내용이며 어떠한 내용을 교재 내에서 정리하여야 할지 감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3학년이 되어서야 단권화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2) 구체적인 교재 선택

교수저의 경우 민법은 김준호 교수님,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 상법은 송옥렬 교수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재상 교수님, 행정법은 박균성 교수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수험서의 경우 민법은 윤동환 강사의 “민법의 맥”,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의 “통합 민사소송법”, 형법은 이인규 강사의 “형법 강의”, 형사소송법은 이재철 강사의 “LawMan 형사소송법”, 헌법은 김유향 강사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행정법은 정선균 강사의 “행정법 엑기스”를 보았습니다.

핸드북은 수험서와 연결된 책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핸드북은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서 특히 유용했습니다.

### (3) 교재 교체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재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급적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법학을 처음 접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교재를 편하게 읽는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교재를 함부로 쉽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학업에 불편함을 느끼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교재를 여러 번에 걸쳐 교체하였습니다.

저는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는 책보다는 전후 맥락을 줄글로 설명해주는 책들이 보기 편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처음에는

박승수 강사의 “민법 정리”를 선택하였다가 저에게 잘 맞지 않아 운동환 강사의 “민법의 맥”으로 교체하였고, 형법의 경우 이용배 강사의 “형법 강의”에서 이인규 강사의 “형법 강의”로 교체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창한 강사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였으나, 개념과 쟁점의 경중이 잘 와닿지 않아 운동환 강사의 “민사소송법의 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는 책의 내용이 저에게 조금 부족하여 다시 이창한 강사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3학년 여름방학을 전후한 때여서 상당히 촉박하게 민사소송법을 다시 정리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3학년 중반에 민사소송법 교재를 교체한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교체한 후 민사소송법 공부가 보다 수월해지고 성적도 많이 상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교체였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학습을 통해 지식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저에게 더 맞는 교재를 선택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 3. 시험 유형별 공부 방법

#### (1) 선택형 시험 준비

선택형은 꾸준히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복습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매일 1시간씩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15분간은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10문제씩 풀고 15분간은 이를 복습하고, 나머지 30분간은 전날 풀었던 문제 중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만한 중요한 판례가 담

긴 문제에 관하여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설은 비전공자가 돌아가면서 맡았고 전공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수정하여 주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풀었던 문제들의 모든 지문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복습하였습니다. 헛갈린 지문이나 틀린 지문의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이해하였고 기본서에 그 내용을 체크하여 정리해두었습니다. 이후에는 기본서만 다시 보아도 정리했던 지문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반복하여 학습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2) 사례형 시험 준비

사례형 역시 꾸준히 문제를 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법, 형사법, 민사법 순으로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1시간 동안 문제를 풀 이후 서로 답안지를 돌려보며 첨삭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첨삭한 후에는 모두가 함께 서로 쓴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여 답안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매일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 작성의 전반적인 면들도 점검하였습니다. 긴 시간 시험을 보아야 하는 만큼 펜을 쥐는 방법부터 글씨체, 글씨 크기와 간격, 문단의 구성, 시간과 분량의 분배, 문제를 푸는 순서 등도 정비해갔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풀다 보니 실전 감각도 높아지면서 글을 쓰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항상 시험 시간을 5-10분정도 모자라게 설정하고 풀었던 결과 실제 변호사시험 때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빨리 시험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3) 기록형 시험 준비

기록형 시험 준비에는 스터디보다는 학교 수업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실무가 교수님의 민사기록형 수업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기재례를 암기도록 하였고, 매주 2회 수업시간에 기록형 문제를 풀어본 후 교수님께서 해설해주셨고, 수업 내용에 관련된 기록형 과제를 매주 제출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사기록형 성적이 상당히 상승하여 기록형 시험의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험유형과 마찬가지로 스터디도 진행하였으나, 기록형의 경우에는 시중의 모범 답안을 정리하여 내 답안으로 편집해보고 써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을 작은 쪽지에 정리하여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외웠고, 청구원인 중 정형화된 문구들은 무의식적으로 바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청구별 청구원인들의 목차를 정리하여 항상 암기하고 다녔습니다.

## IV. 생활관리

수험생활에서 공부시간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아침잠도 많고 스트레스도 잘 받는 성격이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보다는 제때 해소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였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에도 중간중간 동기들과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친한 동기와 소소하게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자습 역시

친한 동기와 함께 스케줄을 맞춰가며 진행하였습니다. 혼자서 공부시간을 계획하였다면 자칫 게을러지기 쉬웠겠지만, 함께 공부하다 보니 공부시간을 확보하여 집중력 있게 자습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스트레스 면에 있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위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협동의 원리로 행복하고 즐겁게 학업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 행운이었습니다.

## V. 마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승자독식의 논리를 지양하면서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저도 지갑 속 변호사자격증이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얻어낸 비단 옷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고민하라는 징표라고 생각하며 살고자 합니다.

못난 아들을 지지하고 기다려주신 부모님,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박수곤 교수님과 범경철 교수님,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이두현 선배와 조재광 선배, 든든했던 최수진 누나, 이현정 누나, 문창남 형, 신경식 형, 우리 학생회의 김주영과 조현석, 좋은 친구였던 정경희, 조영훈, 최창훈 전 법학협 의장과 조세현 전 한양대 회장, 조세형 전 외대 회장, 그 외에도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수험생들께서도 수험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